

“한국 활동 그리웠어요”

컴백 김윤진

3년 만에 영화 ‘시간위의 집’
대본 받아마자 단숨에 결정
악역 연기 김혜수 뒤 잇고파

배우 김윤진(44)이 3년 만에 영화 ‘시간위의 집’으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한국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2014년 ‘국제시장’ 이후 처음이다. 김윤진은 그동안 미국에서 ABC 드라마 ‘미스트리스’ 시리즈(1~4)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윤진은 그동안 한국 활동에 무척 목말라 있었던 듯했다.

“작년 봄 미국에서 ‘미스트리스’ 4번째 시즌을 촬영할 때 ‘시간위의 집’ 대본을 받았어요. 그때 단숨에 읽고는 ‘한국에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네’라고 생각했죠. 한국영화에서 여배우가 이런 역할을 맡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배우로 결정 날까 봐 곧바로 출연을 결정했죠.”

‘시간위의 집’은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집과 가족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스릴러 영화다. 베네수엘라 영화 ‘하우스 오브 디엔드 타임스’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했다.

김윤진은 남편과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25년의 수감생활 후 집으로 돌아와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가정주부 미희 역을 맡았다. 그는 젊은 미희와 나이 든 미희를 오가며 극을 혼자 이끌다시피 한다.

“나이 든 미희가 후두암에 걸린 설정은 제 아이 디어였어요. 25년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고, 눈앞에서 아들이 사라진 순간을 매일 생각하며 살았을 미희를 상상했어요. 젊은 미희와 나이 든 미희의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죠. 원 목소리로 연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후두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기도 했죠. 그러나 목소리에 집중하면 감정이입이 안되고, 감정에 이입하면 제 본래 목소리가 튀어나오니깐, 결국 감정에 몰입하고 목소리는 후시 녹음을 하는 방법을 택했죠.”

김윤진은 ‘국제시장’(2014), ‘이웃사람’(2012), ‘하모니’(2010), ‘세븐데이즈’(2007) 등에서 다양한 모상에 연기를 선보였다.

그는 “누구나 공감하는 모상에는 극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좋은 무기가 되는 것 같다”면서 “캐릭터만 다양하다면 얼마 역도 ‘웰컴(환영)’이라며 웃었다.”

김윤진은 10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 뉴욕의 예술고등학교와 보스턴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했으며 1997년부터 국내에서 TV와 영화 등 연기활동을 했다. 이후 2004년 미국 ABC방송 드라마 시리즈 ‘로스트’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로 활동 폭을 넓혔다.

김윤진은 “미국에서는 동양인 여자라 배역에 한계가 있다”면서 “그래서 ‘미스트리스’처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제작진을 만나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스트리스’에서 김윤진이 맡은 정신과 의사 카렌 김도 원래는 백인 역할이었지만, 제작진은 ‘굳이 백인일 필요가 있나’라며 김윤진을 캐스팅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톱 크루즈처럼 세계적인 배우가 아니면 오디션은 받아해요. 저는 오디션 몇 번 만에 드라마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운이 좋은 경우죠. ‘시간위의 집’이 잘되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오디션을 봐야죠. 그래도 오디션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위의 집’에서 김윤진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운명을 바꾸려 애쓴다. 영화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지 물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에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미적으로 가장 자신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서 제 두 다리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래요. 하하”

한국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다 챙겨본다는 김윤진은 기회가 된다면 매년 한편씩 영화로 한국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앞으로 진짜 알미온 역할이나 악역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영화에서 본 여성 악역 캐릭터 가운데 ‘차이나타운’(2014)의 김혜수씨 캐릭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김혜수씨 뒤를 잇지 않을까요?”



주상욱·차예련 5월 결혼 ‘스타부부 탄생’

배우 주상욱(39)과 차예련(32)이 오는 5월 부부가 된다. 좋은 만남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주상욱의 소속사인 윌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오는 5월경으로 결혼식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미정인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주상욱과 차예련은 지난해 MBC TV ‘화려한 유혹’에서 친구이자 연인 사이로 출연해 연을 맺었다.

주상욱은 1998년 KBS 1TV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후 ‘자이언트’, ‘굿 닥터’, ‘미녀의 탄생’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고 현재는 다음 달 첫 방송 될 tvN 예능 프로그램 ‘주말엔 숲으로’ 촬영을 앞두고 있다.

차예련은 2004년 패션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해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여진구 ‘박종철역, 망설임 없이 결정’

영화 ‘1987’ 김윤석·하정우 등 캐스팅 마무리

배우 여진구(20·사진)가 영화 ‘1987’에 박종철 열사역으로 합류한다고 소속사 제이너스엔터테인먼트가 29일 밝혔다.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1987년 한 해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다. ‘지구를 지켜라’(2003),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2013)의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CJ E&M이 투자배급에 나선다.

소속사 관계자는 “장 감독의 작품인 데다, 박종철 열사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987’에는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김태리가 이미 캐스팅됐으며, 여진구의 합류로 캐스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촬영에 들어간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MBC 뉴스특보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UHD 디큐 2부작 번버림 거문방 55 팔도탐상 스페셜	0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재)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애니컬러리 30 고갱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디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정신 이슈(재)	2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재)	55 닥터 365
2	2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SBS초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토론
3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45 내일은 언제나 무름	
4	00 4시 뉴스집중 50 제19대 대선 정강정책연설 <다불어민주당>	00 누가 누가 잘하나	15 황금주머니(재) 50 19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 <자유한국당>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의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특선디큐 사랑 4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온수>	30 글로벌24 55 독한 일꾼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공사청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목요기획 신영영문화보고서 청춘의 독서	10 15주년 기획 해피 투게더	10 MBC 100톤 토론	10 자기야 - 백년송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빛동네 걸그룹>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간짜장> 11:20 세계테마기행(재) <인도양의 모리셔스 & 레우니옹 신의 발자국을 따라 마파두협곡>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다시 걸다, 인공관절>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대나무 때꾼, 아버지와 아들>
14:30 호기심나라 오기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어우)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달콤한 심포, 북미리안나 제도 태평양의 푸른 낙원, 사이판> 21:30 한국기행 <나를 전쟁 4부 남쪽 속 나라에서는> 21:50 특집다큐멘터리 0.1초를 달린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음 3월 3일 丙辰)

<p>子 48년생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전 된 도량을 형성하게 되리라. 60년생 안배를 잘해야겠다. 72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84년생 보면서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72, 52</p>	<p>午 42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54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악했다. 66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78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은 때가 되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1, 48</p>
<p>丑 49년생 막대한 추정은 심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61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73년생 예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85년생 오해불량하며, 영원해 왔던 것을 궁극적으로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67, 41</p>	<p>未 43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55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게 우려된다. 67년생 지나치다면 아니함만 못 하다. 79년생 자기 서두르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91년생 번거롭더라도 일 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73, 22</p>
<p>寅 50년생 준비하는 경향과 치밀성에 따라 성취도가 천양지차기 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확실한 변화가 절실하다. 74년생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나 최선을 다하면 되느니라. 86년생 고정 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43, 63</p>	<p>申 44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56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라. 68년생 적절하므로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행운의 숫자 : 01, 50</p>
<p>卯 51년생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확실한 주관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63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75년생 최소화 하는 것이 경제성에 일조 하리라. 87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06, 51</p>	<p>酉 45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57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 69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81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2, 33</p>
<p>辰 52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치려면 뜻을 이루리라. 64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76년생 복잡 다단하여 장고를 거듭하리라. 88년생 눈부신 속도로 달려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73</p>	<p>戌 46년생 참으로 난감 하리라. 58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70년생 경거망동 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82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소용 될 수도 있으니 만전을 가하라. 행운의 숫자 : 42, 53</p>
<p>巳 53년생 불행하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65년생 국면을 이끄는 제반 장치들이 필요하다. 77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느니라. 89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다. 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01</p>	<p>亥 47년생 불행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59년생 확인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71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83년생 안전 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70, 0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